

가족의 경제적 수준이 가족생활 어려움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서 가족 내 의사소통과 유대감의 매개효과 검증에 관한 연구 : 원주시를 중심으로*

The mediating effects of family communication and family ties in the pathway of the family economic status to family life difficulties : in Wonju City

서울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부
조교수 정현주**
여주대학교 사회복지상담학과
초빙교수 송사리***

Dept. of Social Welfare, Seoul Cyber University
Assistant Professor Chung, Hyunju
Dept. of Social Welfare, Yeosu University
Visiting Professor Song Sari

〈목 차〉

- | | |
|------------|---------------|
| I. 서론 | IV. 연구결과 및 해석 |
| II. 이론적 배경 | V. 결론 및 논의 |
| III. 연구방법 | 참고문헌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economic status on the difficulties of family life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s of family communication and family ties. A total of 386 people were surveyed, and data from 352 were used for the actual data analysis. For the analysis, technical statistical analysis, correlation analysis, regression analysis, and a Sobel test were conducted.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the correlation analysis confirmed that there are statistically significant correlations among the economic status of households, family communication, family ties, and the difficulties of family life. Second, the economic status of households directly influences the difficulties of family by mediating family communication and family ties. This study identified that family communication and family ties affect the improvement of difficulties

* 본 연구는 원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서비스육구조사(원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 2015년) 데이터의 일부분을 활용하였음.

** 주저자: 정현주(hj8724@iscu.ac.kr)

*** 교신저자: 송사리(killifish9101@vit.ac.kr)

in family life. It suggests that improving economic status, promoting communication among family members, and strengthening family ties can help solve the difficulties of family life.

Key Words : 가족의 경제적 수준(household economic status), 가족생활 어려움(family life difficulties), 가족 내 의사소통(family communication), 가족 유대감(family ties), 매개 효과(mediating effect)

I. 서론

지난 1990년대 후반 외환위기 이후, 우리 사회는 절대적 빈곤의 증가, 빈익빈 부익부 현상으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 나아가 빈곤의 고착화와 대물림 현상과 같은 빈곤 문제가 대두되었다. 빈곤은 비위생적인 주거환경, 사회기반 시설 미비, 치안행정의 소홀 등의 위험한 지역사회 환경, 건강상의 문제, 낮은 교육 수준 등을 초래하며 가족의 생활영역 전반에 걸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 따라 빈곤이 아동·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과 이들의 적응과 관련한 문제(고영희, 2014; 이성희 외, 2009; 하태정·강현아, 2012), 빈곤의 여성화 문제(허미영, 2006), 빈곤가족이 경험하는 어려움과 빈곤가족의 특성(배한나, 2012) 등 빈곤가족이 경험하는 심각하고 다양한 어려움에 관한 연구들이 이루어졌다.

가족은 개인과 사회를 구성하는 기본단위로, 가족 구성원들은 가정 안에서 일상적인 생활을 공유하고, 가정생활에서의 경험은 가족구성원들의 성장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서하진·김정옥, 2009). 즉, 가족은 구성원들의 심리적 요구 충족과 성격유지, 안정화를 이루는 기능을 충족시켜 줌으로써 구성원들의 건강한 발달이나 성장을 지지하는 임무를 수행하게 되는 것이다(Friedman, 1991, 박주희, 2019 재인용).

하지만 가족의 경제적 어려움은 소득으로 인한 갈등, 열악한 주거환경, 전반적인 정신건강이나 문제음주, 가정내 폭력, 부부갈등 등 가족생활의 전반적인 영역에서 수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가족의 경제적 어려움은 자녀의 신체건강상의 문제, 인지발달

의 저하, 내면화, 외현화 문제 등 전반적인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김광혁·신다운, 2013; 임재현, 2011; Gulati & Dutta, 2008). 빈곤가족은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난관으로 인해 좌절감과 심리적 디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이는 차례로 분노와 적대감을 불러일으킨다(McLoyd, 1990). 이로 인해 가족 간의 갈등은 높아지고, 나아가 부부관계, 부모-자녀관계와 같은 가족구성원간 유대관계에서의 악화가 초래되는 등(백혜영, 2017; Santiago & Wadsworth, 2009), 가족생활의 다양한 영역에서 복합적이고 다층적인 문제를 가지게 된다.

이렇듯 가족은 경제적 수준에 따라 다양한 어려움과 문제를 보이지만, 유사한 문제를 가진 가족 중 어떤 가족은 쉽게 좌절하는 반면, 어떤 가족들은 별다른 어려움없이 잘 적응하는 등 가족 간의 차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임정아·이인수, 2006). 따라서 연구자들은 다양한 위기 속에서도 이를 잘 극복하고 가족생활을 잘 영위하고 있는 이유를 밝혀, 가족문제를 예방하고자 하였다(황인실, 2004). 특히 가족의 경제적 수준에 따라 가족구성원간의 관계가 악화되고 일상생활에서의 다양한 영역에서 갈등이 촉발되는 경로에서 가족구성원 간의 친밀한 관계와 정서적 유대감, 적절하고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위한 의사소통 기술과 같은 보호요인들이 강조되고 있다(김승용, 2005; Banovcinova, Levicka & Veres, 2014). 가족구성원들의 상호간 유대가 강하고 친밀감을 높게 지각하는 청소년 자녀들은 높은 수준의 부모-자녀관계를 가지며(김영희·안상미, 2008), 가족구성원들이 서로 지지하고 결속력을 가지는 것은 가족이

건강한 가족이 되도록 하는 중요한 요인이다(한주리·허경호, 2005). 또한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에서도 가정이 화목하고 개방적인 의사소통을 할수록 자녀의 문제행동이 감소하고(김영하, 2008), 빈곤과 같은 역경 속에서도 잘 대처하고 건강하게 적응할 수 있게 된다(김정희, 2015). 즉, 가족 구성원간 긍정적인 의사소통과 가족간 유대감, 감사와 애정 등이 이루어지는 가족은 취약한 경제적 환경에 잘 대처하여 가족의 기능이 건강함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김정희, 2015).

따라서 낮은 경제적 수준이 가족갈등을 비롯한 다양한 일상생활에서의 어려움을 결과하는 경로에서 가족 내 의사소통과 유대감의 매개적 기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것은 가족복지 실천현장에 중요한 실천적 함의를 제공하리라 생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빈곤가족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여, 빈곤이 가족갈등을 야기하고 가족의 일상생활의 다양한 영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서 가족 내 의사소통과 유대감의 보호요인으로써의 역할을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가족의 경제적 수준과 가족생활의 어려움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2. 가족의 경제적 수준은 가족생활의 어려움에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가?
3. 가족의 경제적 수준이 가족생활의 어려움을 결과하는 경로에서 가족 간 의사소통은 보호요인으로 효과를 가지고 있는가?
4. 가족의 경제적 수준이 가족생활의 어려움을 결과하는 경로에서 가족 간 유대감은 보호요인으로 효과를 가지고 있는가?

II. 이론적 배경

1. 빈곤가족의 특성

빈곤한 가정은 낮은 학력, 저임금의 단순생산직이나 단순 서비스직 근무, 불안정한 고용상태와 빈번한 실업 등으로 인한 소득의 부족으로 인해 가정의 식생활과 주거환경의 질이 저하되고, 위험한 지역사회 환경에 노출되며, 과도한 부양가구원수, 가족의 해체, 만성병 이환율 등 열악한 생활조건에 노출되어 있다(김두연, 2006). 또한 열악한 주거환경, 과도한 주거비 부담, 주거의 불안정 등을 핵심요소로 하는 주거빈곤을 경험하게 되는데, 주거빈곤에 장기간 방치되면 생존 자체가 위협받는 상태가 된다(임재현, 2011; Voydanoff, 1991). 또한 빈곤가족은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한 불안으로 인해 수많은 스트레스에 노출되고 그 결과 삶의 다차원적인 영역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받기도 한다(Seccombe, 2000).

먼저 경제적 곤궁은 가족구성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 빈곤계층의 사람들은 과중한 노동시간, 높은 노동 강도, 그리고 열악한 주거환경 등으로 인해 신체건강상의 문제를 가지기 쉽고, 신체질병은 의료비 지출 부담과 노동력 저하 그리고 수입 감소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남희수, 2009). 한편 빈곤가족은 신체건강상의 문제뿐만 아니라 일상적 스트레스, 분노, 무기력, 절망, 미래 불안감, 우울, 자살충동, 자존감 저하, 고립, 가족갈등, 가족에 대한 죄책감 등 전반적인 정신건강이나 문제유증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박상규·이병하, 2004; 배한나, 2012).

무엇보다 빈곤은 자녀의 발달과 관련하여 위험요인으로 이야기되고 있다. 빈곤계층의 부모들은 대개 생계를 위한 장시간, 불규칙한 노동에 종사하고 있어, 자녀들과 부족한 상호작용 수준, 적절하지 못한 지도감독, 빈번한 신체적 처벌, 낮은 정서적지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Conger, Conger & Elder, 1997). 이는 자녀에 대한 부적절한 양육으로 이어지고, 자녀

의 신체건강상의 문제, 인지발달의 저하, 우울, 불안, 의존성 등의 내면화 문제 및 반사회적 행동이나 과잉행동, 또래갈등과 같은 외면화 문제, 학업성취와 같은 아동·청소년의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해석된다(고영희, 2014; 김광혁·김예성, 2008; 김광혁·신다은, 2013; Conger et al., 1992; Duncan et al., 1998; Gulati & Dutta, 2008). 아동·청소년기의 사회·정서발달상의 문제는 성인기까지 심각한 영향을 미쳐 학업실패나 자살, 반사회적 행동을 증가시킬 수 있으며, 나아가 빈곤의 대물림 현상으로 이어져 빈곤의 고착화 가능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심각하다(하태정·강현아, 2012; Cohen, 1998).

한편, 빈곤은 가족간 갈등을 야기하고, 부부간의 관계, 부모-자녀간의 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임재현, 2011; 하경희·강병철, 2013; Voydanoff, 1991). 즉, 가족의 경제적 어려움은 부부간, 부모-자녀간 관계에 악영향을 미치고, 가족갈등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백혜영, 2017; 윤희미, 2005; 이혜숙·임은하, 2009; Gulati & Dutta, 2008; Santiago & Wadsworth, 2009; Yeung, Linver & Brooks-Gunn, 2002). 이와 같이 자신의 통제력을 넘어서는 불가항력적 사건들로 인해 빈곤가구의 구성원들은 좌절감과 심리적 디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되고 이는 차례로 분노와 적대감을 불러일으키기도 한다(McLoyd, 1990).

가족은 현대사회의 대표적인 사적공간이며 일상생활이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의·식·주의 기본적인 생활 이외에도 구성원들의 심리적 안정감과 성격유지, 교육, 노약자 보호 등 여러 기능이 잘 수행되어야, 구성원들의 건강한 발달과 성장이 이루어지고 나아가 행복하고 건강한 가족생활을 유지할 수가 있다(박정윤·박연숙·전미경, 2019).

그러나 빈곤가정은 가족구성원 서로가 긍정적이기보다는 부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으며, 낮은 응집력, 상호간 무관심 등의 특성을 보인다. 부부관계는 갈등이 높았으며, 부모-자녀간 관계에서도 권위적이고 폐쇄적인 특성이 강했고, 거부나 방임과 같은 부

정적인 관계특성을 나타내고 있다(도미향, 2006; 백정재·이재연, 1997). 즉, 빈곤은 부부간의 불화를 유발하고, 부부의 불화는 가족체계의 긴장유발과 불만요인으로 기능한다. 노윤옥과 전미경(2006)에 의하면, 사회경제적 변인이 낮을수록 자녀는 부부갈등을 높게 지각하고 있었다. 대체적으로 부모의 학력이 낮을수록, 부모의 직업이 사무관리직이나 전문직보다 단순근로직이나 판매직일수록, 생활수준이 중하류 이하일수록, 자녀들은 부부갈등을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

이렇듯 가구의 낮은 경제적 수준은 가족구성원들의 경제적 어려움의 문제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열악한 주거환경의 문제, 가족 구성원의 신체·정신 건강상의 문제, 자녀의 발달상의 문제, 가족관계에서의 문제 등 일상생활에서의 다양하고 복합적인 어려움으로 이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 가족의 보호요인 : 가족 내 의사소통과 유대감을 중심으로

빈곤은 가족에게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게 한다. 가족의 빈곤은 가족 구성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배한나, 2012; Mullin & Arce, 2008), 자녀들의 학업성취(Barton, 2006), 비행(Jarjoura, Triplett, & Brinker, 2002), 그리고 심리정서적인 문제(김광혁·신다은, 2013; Conger et al., 1992; Gulati & Dutta, 2008) 등 아동·청소년의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나아가 가족갈등을 심화시키고, 가족기능, 부부관계, 부모-자녀 관계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임재현, 2011; Santiago & Wadsworth, 2009).

이렇듯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경험하는 가구들에 관한 연구는 가족의 부정적이고 병리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춰져 왔으나 점차 긍정적 측면에 초점을 두는 관점으로 변화해 왔으며, 특히 가족이 건강하게 제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가족구성원 간의 친밀한 관계와 정서적 유대감, 적절하고 지속적인 상호작용 특히 의사소통 기술과 같은 요인들이 강조된다

(Banovcinova et al., 2014). Walsh(2002)에 의하면 모든 가족의 성공 뒤에는 서로 서로 친밀하게 연결되어 있고, 역경을 딛고 올라가려는 기술이 있으며, 특히 의사소통의 과정이 중요하다. 즉, 가족 구성원 개개인의 건강한 발달을 도모하고, 가족 구성원간 긍정적 의사소통과 가족의 응집과 적응, 감사와 애정, 스트레스 대처 혹은 문제해결능력, 휴식과 여가 등의 가족간 질적인 시간의 공유, 가족가치의 공유 등이 이루어지는 가족은 삶의 과정에서 직면하게 되는 빈곤과 같은 역경에 잘 대처하고 건강하게 적응할 수 있는 것이다(김정희, 2015; 김승용, 2005).

가족이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개방적이고 긍정적인 의사소통을 통해서 서로 전달할 때, 서로의 감정이나 경험을 공유하며 자신감과 안정감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의사소통은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자신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기회이자,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친밀한 인간관계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다(고경애·정민정, 2007). 부모와 자녀와의 원활한 의사소통은 서로 다른 세대 간의 입장 차이를 이해할 수 있게 하며, 가족이 친밀감이나 유대감을 더 잘 느끼게 하여 가족이 건강하게 기능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노윤옥·전미경, 2006). 선행연구에서는 빈곤한 환경에서도 가족, 친인척, 이웃, 친구, 동료 등과 맺는 사회적 관계가 잘 이루어진다면 빈곤의 부정적인 영향을 막을 수 있다고 한다(이혜숙·임은하, 2009). 특히 가정이 화목하고 개방적인 의사소통을 할수록 자녀의 불안·우울 및 비행이 감소하고 있었으며(김영하, 2008), 가족존중, 애정, 의사소통 및 유대감과 재정적 안정은 청소년의 가정생활 만족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었다(이국화 외, 2011). 즉, 빈곤가족이라는 위험환경 속에서도 가정이 건강하게 기능하고, 부모-자녀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질 때는 자녀의 부적응 문제들이 감소된다고 볼 수 있다(고영희, 2014).

다음으로 건강하게 잘 기능하는 가족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먼저 가족 구성원 간의 유대감 즉, 가족 구성원들의 상호간 유대가 강하고 가족

활동에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한다(위종희, 2012). 선행연구에 의하면 정서적 유대감과 친밀감을 높게 지각하는 청소년들은 높은 수준의 부모-자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김영희·안상미, 2008). 즉, 가족 구성원들이 정서적 유대감을 가지고 서로 지지해주며, 가족들과 여가시간을 함께 보내고, 가족 활동을 같이 하는 등 가족 구성원들이 결속력을 가지는 것은 가족이 건강하게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한주리·허경호, 2005).

이렇듯 빈곤가족이 다양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족이 건강한 의사소통방식과 가족간 유대감을 통해 건강하게 기능하여 빈곤의 부정적인 영향을 예방 혹은 억제할 수 있다면, 빈곤가족을 위한 개입시점 중 하나로 가족의 의사소통과 유대감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및 정책들이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III. 연구방법

1. 조사대상 및 절차

본 연구는 원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의 프로그램 욕구조사 사업의 일환으로 실시한 서베이 자료를 활용하여 이루어졌다. 이 자료는 원주시 인구현황(2015년 1월말 기준)을 기준으로 원주시민 중 외국인 2,820명을 제외한 32만 4,792명을 모집단으로 설정한 뒤, 모집단을 대표하는 표본추출을 위해 각 읍면동의 인구수에 비례하여 표집을 실시하는 비확률 표집의 할당표본추출(quota sampling) 방법을 활용하였다. 이와 같은 방식의 할당표본추출은 표본의 구성비율이 모집단과 일치하여 표본의 대표성을 유지하고, 표본추출과정에 연구자의 편견이 삽입될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설문조사는 2015년 8월에 이루어졌으며 설문조사를 위해 설문을 구성한 연구자와 실무자는 조사원교

육을 사전에 실행하였고, 설문문항의 내용과 의도를 충분히 숙지한 사회복지학 전공자 조사원이 1:1 대인면접법을 실시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조사자가 응답자를 직접 방문하여 정보를 수집하는 대인면접법은 무응답이 상대적으로 낮고 응답률이 높으며 응답의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고 정확한 응답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 자료수집의 절차를 통해 최종적으로 386부의 설문지를 수거하였고 수거된 설문지 중 응답이 성실하지 않은 34부를 제외한 352부가 최종적으로 통계분석에 활용되었다.

2. 측정도구

1) 독립변수: 경제적 수준

독립변수인 경제적 수준은 월평균가구소득에 기초하여 산출하였다. 월평균가구소득을 묻는 단일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점수가 높을수록 경제적 수준이 높은 것으로 측정 및 해석하였다.

2) 종속변수: 가족생활 어려움

종속변수인 가족이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어려움을 측정하기 위하여 가족생활에서 경험할 수 있는 어려움들을 구성한 12가지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본 척도에 구성된 가족생활어려움은 ‘부부갈등’, ‘부모자녀갈등’, ‘친인척갈등’, ‘건강문제’, ‘주거 및 주택문제’, ‘취업 또는 실직문제’, ‘자녀양육 및 교육문제’, ‘대인관계문제’, ‘결혼 및 이성문제’, ‘종교문제’, ‘가사노동문제’, ‘여가활동 문제’ 등의 영역을 포함하고 있다. 문항의 응답범주는 ‘전혀 심각하지 않음’ 1점에서부터 ‘매우 심각함’ 5점까지로 이루어져 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가족이 생활어려움의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하며 신뢰도는 .920이다.

3) 매개변수: 가족의사소통 및 가족유대감

매개변수인 가족의사소통과 가족유대감은 가족건강성 척도의 하위척도를 활용하여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활용된 가족건강성 원척도는 최정혜(2004)

의 ‘가족건강성척도’이며 ‘가족의사소통’, ‘문제해결수행능력’, ‘가족원 간 유대감’, ‘가치체계공유’의 네 가지 하위영역,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어 가족건강성을 측정한다. 본 연구는 본 척도 중 가족의사소통과 가족유대감 각각 5문항을 활용하였다. 문항의 응답범주는 ‘매우 그렇지 않다’ 1점에서부터 ‘매우 그렇다’ 5점까지로 이루어져 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가족건강성의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하며 신뢰도는 .955이다.

3. 분석방법

본 연구를 위해 수집된 자료들은 spss 22.0 통계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분석되었으며 연구문제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조사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기초통계분석을 수행하였고 활용된 척도의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신뢰도 검증(Reliability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또한, 가구의 경제적 수준이 가족생활 어려움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서 가족의사소통과 가족유대감의 매개효과를 탐색하기 위하여 주요변수들 사이의 상관관계 및 다중회귀분석을 실행하였다. 더불어 본 연구에서 매개변수로 설정된 가족의사소통과 가족유대감의 매개효과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Sobel test를 실시하였다.

IV. 연구결과 및 해석

1.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본 연구에 참여한 조사대상자들의 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의 <표 1>과 같다. 조사연구에 응한 대상자는 모두 352명으로 성비는 ‘남자’ 126명(35.8%), ‘여자’ 226명(64.2%)으로 구성되었다. 또한, 조사대상자들의 평균연령은 42.14세이며 연령분포에 따라 20대부터 60대 이상으로 범주를 재구성한 결과 ‘40대’가 115명(32.7%)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

고, 이밖에 '30대' 87명(24.7%), '50대' 77명(21.9%), '20대' 54명(15.3%), '60대 이상' 19명(5.4%)의 순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자들의 학력은 '4년제 대학 졸업'이 130명(37.5%)으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나타냈고, '고등학교 졸업'이 124명(35.7%)으로 근소한 차이를 보였다. 이어서 '전문대 졸업' 46명(13.3%), '대학원 졸업' 33명(9.5%), '중학교 졸업 이하' 12명(3.5%), '기타' 2명(0.6%)의 순으로 확인되었다. 마지막으로 조사대상자들의 혼인상태는 '기혼'에 해당한다는 응답이 262명(74.4%)으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미혼' 70명(19.9%), '사별' 11명(3.1%), '이혼' 8명(2.3%), '별거' 1명(0.3%)의 순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조사대상자의 경제적 수준을 범주화하여 살펴본 결과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의 소득수준을 나타내는 응답이 85명(24.9%)로 가장 많았고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71명(20.8%), '500만원 이상' 69명(20.3%), '4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57명

(16.7%),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45명(13.2%), '100만원 미만' 14명(4.1%)의 순이다.

한편, 본 연구의 주요 변수들의 기술통계 값은 다음의 <표 2>와 같이 확인할 수 있다. 먼저, 최소값과 최대값의 경우, 경제적 수준(최소값 1, 최대값 6)을 제외한 모든 변수들은 최소값 1, 최대값 5의 범위 값을 나타냈다. 주요 변수들의 평균값을 살펴보면 '경제적 수준'은 3.99로 조사대상자들의 월평균 가구소득을 약 300만원 정도로 예상할 수 있으며, '가족의 의사소통'의 평균값은 3.68점, '가족유대감'의 평균값은 3.86점으로 보통수준을 다소 상회하는 결과로 가족 간 의사소통과 가족유대감의 긍정적 인식을 확인할 수 있다. '가족생활 어려움'을 측정하는 척도의 경우, 응답치가 클수록 가족생활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이러한 가족관계 어려움의 평균값은 2.30으로 나타나 보통수준보다 다소 밑도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1> 연구참여자의 일반적 특징

변수	구분	빈도(명)	비율(%)	변수	구분	빈도(명)	비율(%)
성별 (n=352)	남자	126	35.8	혼인 상태 (n=352)	미혼	70	19.9
	여자	226	64.2		기혼	262	74.4
연령 (n=352)	20대	54	15.3		이혼	8	2.3
	30대	87	24.7		사별	11	3.1
	40대	115	32.7		별거	1	0.3
	50대	77	21.9	경제적 수준 (n=341)	100만원 미만	14	4.1
	60대 이상	19	5.4		100만원-199만원	45	13.2
학력 (n=347)	중학교 졸업 이하	12	3.5		200만원-299만원	71	20.8
	고등학교 졸업	124	35.7		300만원-399만원	85	24.9
	전문대 졸업	46	13.3		400만원-499만원	57	16.7
	4년제 대학 졸업	130	37.5		500만원 이상	69	20.3
	대학원 졸업	33	9.5				
	기타	2	0.6				

<표 2> 주요 기술통계

변수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경제적 수준	1	6	3.99	1.465
가족의사소통	1	5	3.68	.670
가족유대감	1	5	3.86	.680
가족생활 어려움	1	5	2.30	.691

2. 주요변수들의 상관관계

본 연구에서 활용되어진 주요변수들 사이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의 <표 3>과 같다. 상관관계 분석에서는 본 연구의 주요변수에 해당하는 경제적 수준, 가족의사소통, 가족유대감, 가족생활 어려움 변수와 통제변수로 활용된 연령, 학력변수가 모두 포함되었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확인된 변수들을 중심으로 변수들 사이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먼저 통제변수의 경우, ‘연령’과 ‘학력’의 관계($r = -.134, p < .05$)에서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연령이 낮을수록 학력수준이 높아진다는 것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함을 의미한다. 독립변수인 ‘경제적 수준’은 ‘학력’($r = .200, p = .001$)변수를 포함하여 ‘가족의사소통’($r = .159, p < .01$), ‘가족유대감’($r = .192, p < .001$)변수와는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고 ‘가족생활 어려움’($r = -.238, p < .001$)변수와는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즉, 학력과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가족 간 의사소통과 가족유대감의 수준이 높아지는 반면, 경제적 수준이 낮을수록 가족생활 어려움의 수준은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매개변수인 ‘가족의사소통’ 변수는 통제변수인 ‘연령’ 변수와 정적 상관관계($r = .156, p < .01$)를 나타내 연령이 높을수록 가족구성원들 사이의 의사소통 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족유대감’ 변수

와는 정적 상관관계($r = .760, p < .001$), ‘가족생활 어려움’ 변수와는 부적 상관관계($r = -.338, p < .001$)를 나타내 가족 간 의사소통 수준이 높을수록 가족유대감 수준이 높아지며 가족 간 의사소통 수준이 낮을수록 가족생활 어려움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 다른 매개변수인 ‘가족유대감’ 변수의 경우 앞서 설명한 ‘경제적 수준’ 및 ‘가족의사소통’ 과의 유의미한 상관관계 이외에 종속변수인 ‘가족생활 어려움’ 과도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r = -.369, p < .001$)를 나타내어 가족유대감이 높을수록 가족생활 어려움의 수준이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3. 연구모형 분석

본 연구는 가구의 경제적 수준이 가구구성원들의 가족생활 어려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두 변수의 관계에서 가족의사소통과 가족유대감이 갖는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이를 위해 Baron & Kenny(1986)가 제시한 3단계 과정을 따랐다. 첫 번째, 독립변수인 가구의 경제적 수준이 종속변수인 가족관계 어려움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가지는지 검증하였고, 두 번째, 독립변수인 경제적 수준이 매개변수인 가족의사소통과 가족유대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하였다. 최종적으로 독립변수인 가구의 경제적 수준과 매개변수인 가족의사소통과 가족유대감을 동시에 투입하였을 때 종속변수인 가족생활 어려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였다. 매개효과 분석에

<표 3> 변수 간 상관관계

변수	연령	학력	경제적수준	가족의사소통	가족유대감	가족생활어려움
연령	1					
학력	-.134[*]	1				
경제적 수준	-.001	.200^{***}	1			
가족의사소통	.156^{**}	.060	.159^{**}	1		
가족유대감	.088	.032	.192^{***}	.760^{***}	1	
가족생활어려움	-.081	.023	-.238^{***}	-.338^{***}	-.369^{***}	1

^{*} $p < .05$, ^{**} $p < .01$, ^{***} $p < .001$

앞서 변수들 간 다중공선성 문제를 검증하기 위해 분산팽창요인(VIF: Variance Inflation Factor)값을 검토한 결과, VIF 값이 10미만으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1) 경제적 수준이 가족생활 어려움에 미치는 영향: 가족의사소통의 매개효과

연구모형을 분석하기 위하여 먼저, 가구의 경제적 수준과 가족구성원들 경험하는 가족생활 어려움의 사이에 가족의사소통의 매개효과를 살펴보았으며 연구모형과 연구결과는 각각 아래의 <그림 1>과 <표 4>와 같다.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

석하는 모형 1단계에서 가구의 경제적 수준은 이들 가구구성원들의 가족생활 어려움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p < .001$)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구의 경제적 수준($\beta = -.244$)이 낮아 형편이 어려워수록 가족생활의 어려움의 수준도 높아지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가족생활 어려움에 대한 경제적 수준의 설명력은 6.0%이다. 따라서 가구의 경제적 소득은 가족생활 어려움에 부정(-)방향의 영향이 있음이 검증되었다. 이는 가구의 소득이 낮아 경제적 어려움을 경험하는 가구의 경우 그 가구에 속한 구성원들이 일반가구에 비해 다양한 영역에서 가족생활의 어려움을 경험할 위험이 높다는 선행연구들(남희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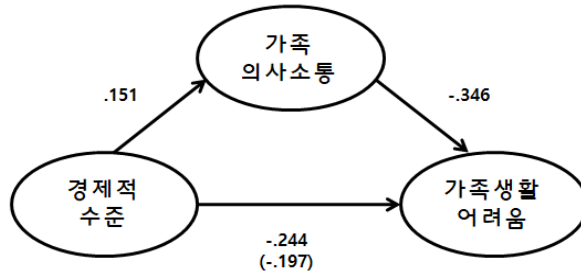
<표 4> 경제적 수준과 가족생활 어려움의 관계: 가족의사소통 매개효과 검증

변수	모형1 (독립변수 → 종속변수)			모형2 (독립변수 → 매개변수)			모형3 (독립변수 & 매개변수 → 종속변수)		
	B	β	t	B	β	t	B	β	t
상수	3.070		16.462***	2.897		15.928***	4.132		17.699***
성별 ¹⁾	-.092	-.064	-1.206	.053	.038	.709	-.077	-.053	-1.444
연령	-.006	-.097	-1.838	.010	.176	3.284***	-.002	-.040	-.799
학력 ²⁾ (고졸이하기준)	대학교졸업	-.007	-.005	-.091	.051	.038	.012	.009	.165
	대학원이상	.113	.048	.839	.136	.059	1.025	.186	.078
독립변수	경제적 수준	-.115	-.244	-4.560***	.069	.151	2.791**	-.094	-.197
매개변수	가족의사소통						-.358	-.346	-6.780***
R^2	.074			.059			.190		
Adj. R^2	.060			.044			.175		
F	5.314***			4.154***			12.900***		

$p < .05$ ** $p < .01$ *** $p < .001$

¹⁾ 성별변수는 가변수로 변환하였으며 기준변수는 남자이다.

²⁾ 학력변수는 고졸이하, 2년제 및 4년제 대학교 졸업, 대학원이상으로 범주화한 뒤 가변수로 변환하였으며 기준변수는 고졸이하이다.



<그림 1> 경제적 수준이 가족생활 어려움에 미치는 영향 : 가족의사소통의 매개효과 검증

2009; 이혜숙·임은하, 2009; 임재현, 2011; Gulati & Dutta, 2008; Seccombe, 2000)의 결과에 부합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매개변수에 대한 독립변수의 영향력을 분석하는 모형2를 살펴보면 경제적 수준($\beta=.151$)은 가족의사소통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p<.01$)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경제적 수준이 높은 가구의 경우 가족구성원들 사이의 의사소통 수준이 높아지며 반대로 경제적 수준이 낮은 가구일수록 가족 의사소통의 수준이 낮아지는 정(+)-방향의 영향력을 알 수 있으며 경제적 수준 변수의 설명력은 4.4%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모형2의 과정을 통해 가구의 경제적 수준이 낮을수록 가구구성원들의 의사소통 수준이 낮아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선행연구들(박상규·이병하, 2004; 임재현, 2011; Banovcinova et al., 2014)의 맥락과 일치한다.

한편,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모형3에서는 독립변수와 매개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력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가족의사소통($\beta=-.346$)은 가족생활 어려움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p<.001$)을 주어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가족생활 어려움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던 경제적 수준의 베타(β)값이 모형 1에서는 -.244, 모형 3에서는 -.197($p<.001$)으로 나타나 감소된 베타값을 통해 부분 매개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 즉, 경제적 수준이 낮은 가구의 구성원들의 경우, 가족구성원들 사이의 의사소통 수준이 위축되는 경험을 매개하여 가족생활 어려움의 수준이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2) 경제적 수준이 가족생활 어려움에 미치는 영향: 가족유대감의 매개효과

앞서 가구의 경제적 수준과 가족생활 어려움의 관계에서 가족의사소통의 매개효과를 확인하였다. 본항에서는 본 연구에서 설정한 또 다른 매개변수에 해당하는 가족유대감이 경제적 수준과 가족생활 어려움 사이에 매개효과를 나타내는지 살펴보고자 하

며 연구모형과 연구결과는 각각 다음의 <그림 2>와 <표 5>와 같다.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모형 1에서 가구의 경제적 수준은 가족생활 어려움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p<.001$)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따라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구($\beta=-.244$)의 구성원들이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가족생활의 어려움을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경제적 수준과 가족관계 어려움 사이의 유의미한 부적(-)방향이 검증되었으며 가족생활 어려움에 대한 경제적 수준의 설명력은 6.0%이다.

다음으로 독립변수가 매개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모형 2에서 경제적 수준($\beta=.181$)은 가족유대감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p<.001$)을 나타내어 경제적 수준이 낮을수록 가족유대감도 낮아지는 정(+)-방향의 영향력이 검증되었다. 이는 가구의 경제적 수준이 낮을수록 가족구성원 사이의 가족유대감이 낮아지며 반대로 경제적 수준이 높아질수록 가족구성원 사이의 가족유대감 수준도 높아진다고 해석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매개변수에 대한 독립변수의 설명력은 5.9%이다. 모형 2의 과정을 통해 검증된 이러한 결과는 가구의 경제적 수준이 낮을수록 가구구성원들의 가족유대감이 낮아진다는 선행연구들(김승용, 2005; Walsh, 2002)의 결과에 부합하는 것이다.

마지막 단계인 모형 3에서는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독립변수와 매개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모형 3에서 가족유대감($\beta=-.318$)은 가족생활 어려움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p<.001$)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고, 동시에 독립변수인 경제적 수준 역시 가족생활 어려움에 유의한 영향($\beta=-.194$, $p<.001$)을 주었다. 또한, 경제적 수준의 베타(β)값이 모형 1의 값에 비추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가족유대감 변수의 부분 매개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 즉, 가구의 낮은 경제적 수준으로 인하여 가구구성원들 사이의 가족유대감 수준이 낮아지며 이는 결과적으로 가족생활 어려움의 수준을 높이는 부분 매개효과로 작용하는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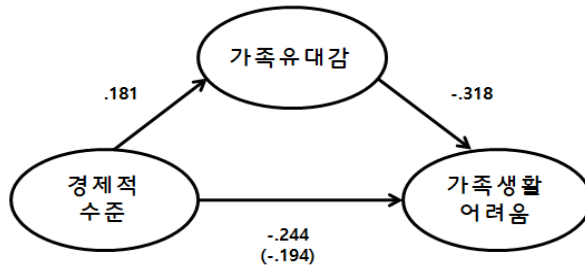
〈표 5〉 경제적 수준과 가족생활 어려움의 관계: 가족유대감 매개효과 검증

변수	모형1 (독립변수 → 종속변수)			모형2 (독립변수 → 매개변수)			모형3 (독립변수 & 매개변수 → 종속변수)			
	B	β	t	B	β	t	B	β	t	
상수	3.057		16.462***	3.057		16.611***	4.098		16.978***	
성별 ¹⁾	-.092	-.064	-1.206	.218	.155	2.908**	-.025	-.017	-.341	
연령	-.006	-.097	-1.838	.006	.107	2.014*	-.004	-.069	-1.373	
학력 ²⁾ (고졸이하기준)	대학교졸업	-.007	-.005	-.091	.096	.071	1.253	.028	.020	.374
	대학원이상	.113	.048	.839	.128	.054	0.949	.184	.077	1.413
독립변수	경제적 수준	-.115	-.244	-4.560***	.084	.181	3.374***	-.093	-.194	-3.749***
매개변수	가족유대감						-.325	-.318	-6.108***	
R^2		.074			.073			.173		
Adj. R^2		.060			.059			.158		
F		5.314***			5.236***			11.469***		

* $p < .05$ ** $p < .01$ *** $p < .001$

¹⁾ 성별변수는 가변수로 변환하였으며 기준변수는 남자이다.

²⁾ 학력변수는 고졸이하, 2년제 및 4년제 대학교 졸업, 대학원이상으로 범주화한 뒤 가변수로 변환하였으며 기준변수는 고졸이하이다.



〈그림 2〉 경제적 수준이 가족생활 어려움에 미치는 영향 : 가족유대감의 매개효과 검증

본 연구는 가구의 경제적 수준이 가족의 의사소통과 가족유대감의 매개효과를 통해 가족생활 어려움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Baron & Kenny(1986)의 3단계 검증방법을 통하여 확인하였으며 결과적으로 가족구성원들 사이의 의사소통과 가족의 유대감 변수는 가구의 경제적 수준과 가족생활 어려움을 매개하는 요인인 것으로 검증되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설정한 매개요인에 해당하는 가족의 의사소통과 가족유대감의 유의성을 확인하고자 Sobel test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매개변인의 검정량이 0.05수준에서 Critical value인 1.96을 넘어 유의미하게 매개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가구의 경제적 수준이 가족의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어려움에 영향력을 미치는 과정에서 가족 내 의사소통과 가족 유대감은 빈곤이 주는 부정적인 영향을 차단하는 보호요인으로서 중요하다는 실천적 함의를 찾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가족의 경제적 수준, 가족생활의 어려움 변수들 간의 관계, 가족의 경제적 수준과 가족생활의 어려움 사이에 가족 내 의사소통, 가족 유대감의 매개효과를 분석하였다. 연구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족의 경제적 수준은 가족생활 어려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연구문제 1에서 설정한 가족의 경제적 수준과 가족생활 어려움의 유의미한 관계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경제적 수준이 가족의 건강성에 중요한 영향을 준다고 밝힌 어은주와 유영주(1995), 강희경(2005)의 연구, 그리고 경제수준에 대한 지각이 높을수록 가족의 긍정적 기능이 높아진다는 연구결과(고영희, 2014; 박정애, 2015; 임정아·이인수, 2006)와 맥을 같이 한다. 또한 빈곤계층의 가족은 다양한 디스트레스를 경험하며, 특히 가족관계에서 어려움을 겪는다고 한 선행연구들의 결과를 뒷받침하는 것이기도 하다(Conger et al., 1997; 하경희·강병철, 2013).

둘째, 가구의 낮은 경제적 수준이 가족생활의 어려움을 결과하는 경로에서 가족구성원들 사이의 의사소통과 가족유대감이 가족생활 어려움을 감소시키는 유의미한 매개효과를 보였다. 이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는 가정이라 할지라도 가족이 건강하게 기능할수록 부부, 부모 및 자녀에 해당하는 가족구성원들의 적응력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힌 이성휘 외(2009)의 연구와 가족의 건강성이 빈곤이라는 위험한 가족환경 속에서 보호요인으로 기능할 수 있다는 고영희(2014)의 연구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가족의 경제적 곤궁은 불충분한 식생활과 열악한 주거환경, 위험한 지역사회환경에의 노출과 같은 열악한 생활조건과 미래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무망감 등 가족구성원들로 하여금 많은 어려움을 겪게 한다. 빈곤가정의 부모들은 가정내 폭력, 음주 등의 문제행동, 무기력, 우울, 절망감, 자기가치감 저하 등 정신건강상의 문제, 부부 및 부모-자녀간 갈등, 부모의 부적절한 양육행동 등 부정적인 가족관계 등 다양한 어려움을 경험하며, 자녀들도 신체·인지·사회심리적 발달의 결여, 그 결과 학업성취의 저하, 내면화·외면화 문제행동 등 다양한 문제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본 연구는 가구의 경제적 어려움이라는 위험한 환경 속에서도 가족이 건강하게 기능하면 가족구성원들이 별다른 어려움없이 잘 적

응할 수 있다고 바라보는 강점관점을 취한다. 가족의 건강한 의사소통과 유대감은 빈곤이 주는 어려움을 감소시키는 보호요인으로 기능하며 따라서 가족 내 의사소통과 가족의 유대감은 빈곤가족의 문제를 예방 혹은 감소시키는 보호요인으로서 적극적으로 개입되어야 할 요소이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가족생활 어려움 해소를 위한 제언을 다음과 같이 할 수 있다.

먼저, 건강한 가정생활의 영위와 가족의 유지 및 발전을 위한 국민의 권리 및 의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해야 한다. 또한, 지난 2005년 ‘강가정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가정문제의 적절한 해결방안 마련과 가족구성원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된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확대설치하고,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해 가정의 건강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을 강구해야 한다(서종수·조희금·이재범, 2016). 건강가정지원사업이란 ‘모든 가족은 강점을 가지고 있고, 도전과 잠재적 역량을 가지고 있다’는 건강가족적 관점과 그 맥락을 같이 한다(강희경, 2005). 즉, 빈곤가족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만을 드러내고 문제시할 것이 아니라, 빈곤가족의 강점을 바라보고, 개발하려고 하는 관점을 가질 때 오히려 빈곤이라는 위험요인 속에서도 건강한 가족을 이루기가 더 수월해지는 것이다. 또한 빈곤가족의 어려움을 예방 혹은 감소시키는 가족건강성은 가족의 힘을 키워주는 것은 물론 가족구성원인 개개인들이 다시 사회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해 낼 수 있도록 도와 줄 수 있는 보호요인의 기능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가족건강성은 빈곤가족의 어려움을 완화시키는 매개요인으로서 활발히 다루어 지지 못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경제적 어려움을 경험하는 가족에 대한 돌봄지원사업, 사회자원 통합 및 효율화 사업 등을 제공하여 빈곤가족이 경험하는 다양한 어려움을 감소시킬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며, 부부간 갈등, 부모-자녀간 갈등을 경험하는 가족에게는 다양한 가족 배려·어울림 사업, 생애주기별 가족지원사업, 부모교육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여 가

족간 갈등을 완화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손서희·계선자, 2014).

둘째, 낮은 경제적 수준이 가족생활의 어려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적 고려, 이를 수행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나 사업들에서 가족생활의 어려움을 완화시킬 수 있는 측면에 보다 집중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대인관계 기술, 의사결정 기술, 가족 상호작용, 가족구성원의 역할 및 책임 등을 다루고 있는 가족생활교육을 통해 가족간 지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김경신, 2015). 구체적으로 가족 내 의사소통, 가족구성원 간 유대감 등을 각각 향상시킬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이나 사업이 빈곤가족을 대상으로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부부갈등, 부모-자녀갈등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가족기능 증진 프로그램이나 부모-자녀가 서로 존중하고 존중받는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부모교육 프로그램들이 빈곤계층 가족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가족의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려는 실천적 노력이 경주되어야 한다. 부부, 부모-자녀간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해 가족 구성원들이 각자 자신의 가치를 가족들에게 진솔하게 표현하고, 자신의 의사를 왜곡되지 않게 전달하는 방식은 가족 스스로가 자신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건강한 가족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빈곤으로 인해 경험하는 일상생활에서의 어려움을 완화시켜 주는 보호요인으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기, 적절한 자기노출, 공감적 관계맺기 등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환경조성과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구체적으로 가족의 건강한 의사소통과 유대감 증진을 위한 부모역할훈련프로그램 제공서비스가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강선경, 2011).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본 연구는 원주시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따라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인 다른 지

역의 가족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들에게도 본 연구의 결과를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연구자들의 고민은 본 연구의 첫 번째 한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를 통해 원주시만이 아니라 다른 시·도별 빈곤가족을 대상으로 이들의 특성과 요구, 이들이 빈곤으로 인해 경험하는 어려움과 가족건강성의 매개효과를 밝혀내어 개입방안들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빈곤으로 인해 가족이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갈등이나 어려움에 초점을 두고 그 경로에서 가족의 의사소통이나 가족간 유대감이 어떤 보호요인으로 기능하는지를 검증하고자 진행되었다. 후속연구를 통해 가족구성원 사이의 의사소통과 가족유대감과 같은 보호요인만이 아니라, 이들 어려움을 예방 혹은 감소시키는 또 다른 보호요인으로 기능하고 있는 보다 다양한 변수들을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일반적 형태의 가구를 위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하지만, 현대사회는 다양한 가족형태가 존재하며, 특히 한부모 가족, 조손 가족, 다문화 가족 등은 일반적 형태의 가구에 비해 경제적 어려움의 수준이 더욱 높다고 이야기된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빈곤위험이 높은 특정 형태의 다양한 가족을 대상으로 하여 가족건강성이 보호요인으로 기능하는지를 살펴보고, 가족형태와 특성에 따른 다양한 정책방안과 프로그램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1) 강선경(2011). 부모역할훈련프로그램이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가족유연성 및 가족관계 향상에 미치는 효과성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34, 109-136.
- 2) 강희경(2005). 가족의 건강성과 학령기 아동의 자아탄력성.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3(3), 93-102.

- 3) 고경애 · 정민정(2007). 가족기능과 부모-자녀의 사소통이 청소년의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치료학회지, 15(2), 301-320.
- 4) 고영희(2014). 빈곤아동의 가족건강성과 자아탄력성, 우울과의 관계. 아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5) 김정신(2015). 가정관리학 관점에서의 가족교육 현황과 전망. 한국가정관리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2015(11), 3-34.
- 6) 김광혁 · 김예성(2008). 가족빈곤이 아동학대 및 방임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 - 부모의 우울 및 가족관계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 한국생활과학회지, 17(5), 1-13.
- 7) 김광혁 · 신다운(2013). 빈곤한 주거환경과 학업성취도의 관계 메커니즘 - 부부 및 가족갈등과 부정적 양육행동의 매개적 작용을 중심으로 -. 사회과학논총, 28(2), 73-93.
- 8) 김두연(2006). 빈곤과 핵가족 해체: 빈곤층 조손가족 사례연구.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9) 김승용(2005). 빈곤여성의 가족기능과 관련 요인,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0(3), 107-124.
- 10) 김영하(2008). 빈곤가정아동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보호요인. 한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11) 김영희 · 안상미(2008). 가족의 응집성과 적응성,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가족갈등과 청소년의 우울 및 비행. 청소년학연구, 15(2), 1-30.
- 12) 김정희(2015). 청소년기 자녀를 둔 가족의 가족건강성 증진 프로그램의 개발과 효과검증. 영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13) 남희수(2009). 저소득 모자가정 가구주의 경제적 스트레스와 가족기능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백석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14) 노윤옥 · 전미경(2006). 청소년 자녀가 지각한 부부갈등과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교육학회지, 18(1), 1-15.
- 15) 도미향(2006). 빈곤가족의 해체현상에 관한 연구. 아동복지연구, 4(3), 47-65.
- 16) 박상규 · 이병하(2004). 빈곤층의 심리적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16(4), 813-824.
- 17) 박정애(2015). 빈곤아동과 일반아동이 지각하는 가족건강성, 사회적 지지, 자아탄력성의 관계. 경인교육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18) 박정윤 · 박연숙 · 전미경(2019). 가족사례관리 사업 운영 현황 및 효율성 제고 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지역 건강가정 ·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23(1), 35-60.
- 19) 박주희(2019). 중년기 취업모의 가족부양부담이 심리적 복지감에 미치는 영향-가족지지 자원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23(3), 133-148.
- 20) 배한나(2012). 빈곤가정 부부갈등이 아동의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영향: 부모 양육태도의 매개효과.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21) 백정재 · 이재연(1997). 빈곤아동이 지각한 가정의 심리사회적 환경과 부적응 행동과의 관계. 생활과학연구지, 12(1), 71-93.
- 22) 백혜영(2017). 빈곤이 부모우울과 가족 내 사회적 자본을 통해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학교사회복지, 38, 47-74.
- 23) 서종수 · 조희금 · 이재범(2016). 기혼남성의 가정건강성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20(4), 19-34.
- 24) 서하진 · 김정옥(2009). 대학생이 지각한 가족건강성이 자아존중감과 행복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4(3), 141-178.
- 25) 손서희 · 계선자(2014). 서울시 자치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이용자의 가족건강성 및 프로그램 요구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32(6), 19-30.
- 26) 어은주 · 유영주(1995). '가족의 건강도' 측정을 위한 척도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3(1), 145-156.
- 27) 윤혜미(2005). 경제적 곤란과 가족갈등이 아동의 적응에 미치는 영향: 아동의 스트레스와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

- 지학, 57(3), 133-164.
- 28) 위중희(2012). 아동이 지각한 가족건강성, 자아탄력성, 사회적지지, 스트레스 대처행동 및 심리적 안녕감 간의 구조관계분석. 동아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29) 이국화 · 류점숙 · 이신정 · 신호식(2011). 청소년의 가족건강성에 따른 학교생활만족도와 가정생활만족도. *生活科學研究*, 21, 95-102.
 - 30) 이성휘 · 박정윤 · 김양희 · 장영은 · 어성연(2009). 빈곤가정 아동이 지각한 가족건강성 및 자아탄력성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7(2), 305-316.
 - 31) 이혜숙 · 임은하(2009). 빈곤가정의 빈곤화 과정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26, 255-294.
 - 32) 임재현(2011). 주거빈곤이 가족생활에 미치는 영향. *사회복지연구*, 42(1), 279-304.
 - 33) 임정아 · 이인수(2006). 청소년기의 가족건강성과 학교적응 연구. *아동교육*, 15(2), 37-62.
 - 34) 최정혜(2004). 주말부부의 가족스트레스, 대처전략 및 가족건강성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2(2), 69-83.
 - 35) 하경희 · 강병철(2013). 빈곤가구의 심리적 디스트레스(Distress) 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 *한국사회복지질적연구*, 7(2), 115-137.
 - 36) 하태정 · 강현아(2012). 가족 빈곤이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 지역사회 환경과 부모우울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 *한국아동복지학*, 40, 139-166.
 - 37) 한주리 · 허경호(2005). 가족 구성원의 의사소통 능력, 내외 통제성, 충동성, 낙관성이 가족관계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언론정보학보*, 2, 251-282.
 - 38) 황인실(2004). 가족건강성과 중장년기 성인남녀의 자아정체감.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39) 허미영(2006). 빈곤의 여성화: 빈곤의 계기와 가족의 역할 - 부산 · 경남지역 심층면접 자료를 중심으로 -. *한국여성학*, 22(4), 235-262.
 - 40) Banovcinova, A., Levicka, J., & Veres, M. (2014). The Impact of Poverty on the Family System Functioning. *Social and Behavioral Science*, 132, 148-153.
 - 41) Baron, R. M., & Kenny, D. A. (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 1173-1182.
 - 42) Barton, P. (2006). The dropout problem. *Educational Leadership*, 63, 14-18.
 - 43) Cohen, M. A. (1998). The monetary value of saving a high-risk youth. *Journal of Quantitative Criminology*, 14(1), 5-33.
 - 44) Conger, R. D., Conger, K. J., Elder, G. H., Jr., Lorenz, F. O., Simons, R. L., & Whibeck, L. B. (1992). A Family process model of economic hardship and adjustment of early adolescent boys. *Child Development*, 63, 536-541.
 - 45) Conger, R. D., Conger, K. J., & Elder, G. (1997). Family economic hardship and adolescent adjustment: Mediating and moderating processes. pp. 288-310. in G. J. Duncan and J. Brooks-Gunn(ed.). *Consequences of Growing Up Poor*. New York: Russell Sage Foundation.
 - 46) Duncan, G. J., Yeung, W. J., Brooks-Gunn, J., & Smith, J. R. (1998). How much does childhood poverty affect the life chances of children?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63, 406-423.
 - 47) Gulati, J. K., & Dutta, J. (2008). Risk, conflict between parents and child adjustment in families experiencing persistent poverty in India. *Journal of Family Studies*, 14(1), 107-123.
 - 48) Jarjoura, G., Triplett, R., & Brinker, G. (2002). Growing up poor: Examining the link between

- childhood poverty and delinquency, *Journal of Quantitative Criminology*, 18, 159-187.
- 49) McLoyd, V. C. (1990). The impact of economic hardship on black families and children: Psychological distress, parenting, and socioemotional development. *Child Development*, 61, 311-346.
- 50) Mullin, W. J., & Arce, M. (2008). Resilience of Families Living in Poverty. *Journal of Family Social Work*, 11(4), 424-440.
- 51) Santiago, C. D., & Wadsworth, M. (2009). Coping with family conflict : what's helpful and what's not for low-income adolescents. *Journal of Child & Family Studies*, 18, 192-202.
- 52) Secombe, K. (2000). Families in poverty in the 1990s: Trends, causes, consequences, and lessons learned.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2(4), 1094-1113.
- 53) Voydanoff, P. (1991). Economic distress and family relations: A Review of the eightie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52, 1099-1115.
- 54) Walsh, F. (2002). Resilience and social work practice: Three case studies. *Journal of Contemporary Human Services*, 82, 441-448.
- 55) Wender, P. H., Kety, R. D., Schulsinger, S. S., & Welner, J. (1973). Social class and psychopathology in adoptees.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28, 318-325.
- 56) Yeung, W. J., Linver, M. R., & Brooks-Gunn, J. (2002). How Money Matters for Young Children's Development: Parental Investment and Family Process. *Child Development*, 73, 1861-1879.

- 투 고 일 : 2019년 09월 01일
- 심 사 일 : 2019년 10월 05일
- 게재 확정일 : 2019년 11월 14일